최근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기업 감소세 지속

□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 및 즉시 상장폐지 기준,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준을 통하여 상장 유지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상장폐지를 판단

□ 2009년 상장기업에 대한 실질심사 제도 도입으로 코스닥기업의 상장폐지 건수는 2010년에 74개로 급증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, 더불어 코스닥시장의 지속적인 건전성 개선으로 실질심사 대상기업도 급감

□ 2012년부터 최근까지 코스닥기업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, 실질심사, 자본잠식 순이며, 실질심사 도입 이후 이를 통해 상장폐지된 기업 중 44.4%는 횡령·배임을 사유로 퇴출

□ **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 및 즉시 상장폐지 기준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준을 통하여 상장 유지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상장폐지를 판단**

— 코스닥시장 퇴출 요건에 따르면 매출액 및 시가총액 미달, 장기 영업손실 지속, 자본잠식 등 지정된 기준에 미달한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, 일정기간동안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퇴출 조치함[1)]

- 2017년 현재(10월 10일) 코스닥시장에 33개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, 이중 24개 기업은 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

—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, 해산사유(피흡수합병, 파산선고) 발생,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을 두는 경우,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등은 즉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

—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기준을 보완하고 기업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적격 상장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며, 개별적 요건 및 종합적 요건을 통해 상장적격성 여부를 판단

- 개별적 요건의 심사항목으로는 불성실공시,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등, 상장관련 허위 서류 제출이 있으며, 공시위반 및 허위신고 내용이 시장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심사
- 종합적 요건의 심사항목으로는 ① 영업,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, ② 지배구조, 내부통제제도, 공시체제 등 경영투명성, ③ 기타(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 저해)로 구분
- 횡령·배임, 분식회계 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시 실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및 거래소 결정을 통해 상장 유지·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를 판단

1) 2017.1.1. 개정규정 기준 참고

□ **2009년 상장기업에 대한 실질심사 제도 도입으로 코스닥기업의 상장폐지 건수는 2010년에 74개로 급증하였으나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, 코스닥시장의 꾸준한 건전성 개선으로 실질심사 대상기업도 급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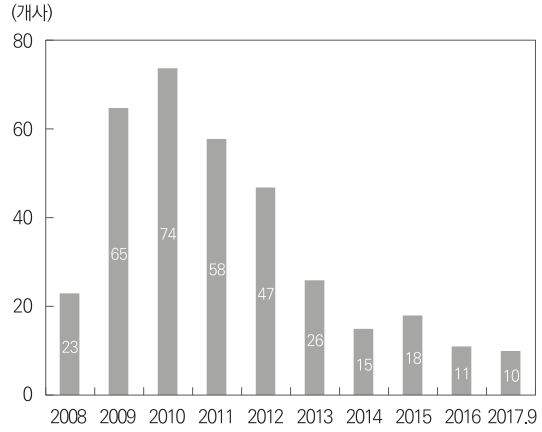
—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기업은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65개와 74개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꾸준하게 감소하여 2016년 기준 11개로 최근 10년간 최저치를 기록

- 2014년부터 최근까지 상장폐지된 코스닥기업 수는 매년 20개사 미만으로 2017년 9월말 기준 10개사로 집계

— 한편 횡령·배임, 분식회계 등으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대상기업뿐만 아니라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된 기업 수도 2010년 이후 크게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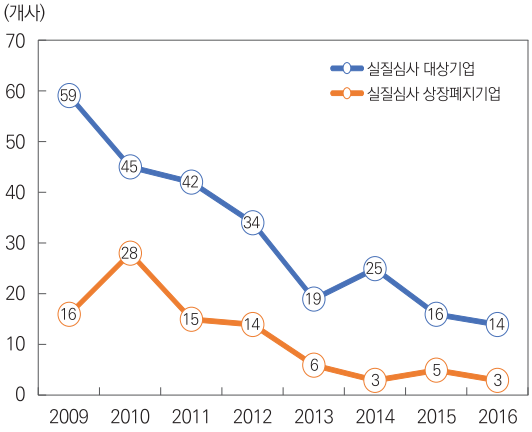
- 2016년 실질심사 대상기업은 14개로 2009년대비 45개(76.3%) 감소하였으며,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된 기업 비중도 2010년 62.2%(28개)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16년 21.4%(3개)로 집계
- 이는 실질심사가 도입된 2009년을 기준으로 3~4년간 퇴출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대거 상장폐지된 것에 기인

코스닥기업 상장폐지 현황



주 : SPAC과 유가증권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은 제외
자료: 한국거래소

코스닥시장 실질심사 대상기업 및 상장폐지 현황



자료: 한국거래소

□ **2012년부터 최근까지 코스닥기업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, 실질심사, 자본잠식 순이며, 실질심사 도입 이후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된 기업 중 44.4%는 횡령·배임을 사유로 퇴출**

— 2012년부터 2017년 9월말까지 상장폐지된 127개 코스닥기업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 등(43개)이 가장 많았으며,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고려한 실질심사(31개)에 의한 상장폐지와 자본잠식(21개)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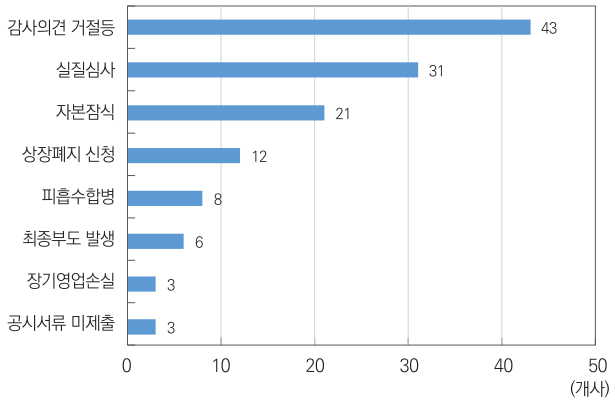
- 즉시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피흡수합병과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사유도 각각 8개와 6개로 집계

—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의 경우 횡령·배임 사유의 비중이 44.4%로 가장 크게 나타난 가운데 회계처리기준 위반 13.3%, 영업정지 11.1% 순으로 집계

•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질심사로 퇴출된 90개의 코스닥기업 중 횡령·배임 사유는 40개이며, 횡령·배임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2010년에 17개로 정점 이후 급감하여 2016년에는 1개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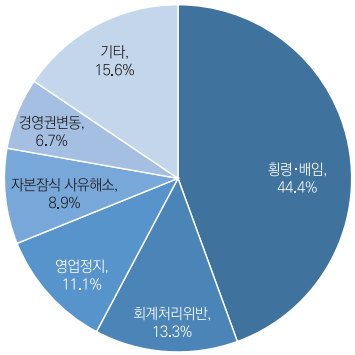
— 코스닥기업의 상장폐지 및 실질심사 대상기업의 감소는 그간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의미 하나 상장폐지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사의견 거절 등은 투자자들이 사전 예측하여 대비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

상장폐지 사유별 현황(2012년~2017년 9월)



자료: 한국거래소

실질심사 사유별 상장폐지 비중



자료: 한국거래소

선임연구원 박신애